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표지 탐색하기

<안녕, 내 비밀번호!> 책을 읽기 전에 책의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앞표지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나요?

⇒

2) 여러분의 주변에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곳이나 물건을 찾아 세 가지 이상 써 보세요.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도 이제 비밀번호가 있다!”**

우리 집에서는 나한테만 ‘꼬마’래.  
그래서 아무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 주나 봐.  
흥. 나도 나만의 비밀번호를 만들 거다, 뭐.  
그런데, 어디에 거는 게 좋을까?  
책상, 책꽂이, 단추, 방문…… 찾았다!  
바로 ‘나만 아는 내 것’에 거는 거야!  
‘꼬마’라고 불리기 싫은 아홉 살 두리의  
좌충우돌 비밀번호 대소동!

이 글로 보아,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상하여 써 보세요.

⇒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안녕, 내 비밀번호!>의 본문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자 엄마는 더 애가 타서 의사 선생님께 자꾸만 물었어.

“혹시 다른 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애가 말을 못 하잖아요. 좀 더 자세  
히 봐 주세요.”

“글쎄요, 제 소견으로는 소아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글의 밑줄 친 낱말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를 하고  
 옮겨 쓰세요.

1) ( )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의 반대말

2) ( )

‘생각, 의견, 견해’ 등과 비슷한 말

3) ( )

‘귀, 코, 목구멍, 기관, 식도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학 분야.’를 뜻하는 말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어휘력 쑥쑥 키우기

<안녕, 내 비밀번호!>에서 뽑아 쓴 다음 문장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숙제 같은 거 이제 안 해도 돼. 학교 안 갈 건데, 뭐!”  
나는 계속 어기대어. 그러자 엄마가 내게 물었어.
- 누나는 어깨를 으쓱했어. 나는 누나를 흘겨보았어.
  - 나는 뿔로통한 목소리로 형에게 대꾸했어.
  - 얼굴을 자꾸 들여다보자 짝공은 머쓱한지 슬그머니 얼굴을 돌렸어.

(나) “와, 우리 꼬마가 이제 다 컸네. 1학년 몇 반이야? 선생님 ( ㉠ )  
도 알아?”

누나들이 묻는 것마다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

1) (가)의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아래 낱말 중 ①~④의 각 뜻을 지닌 것을 찾아 빈칸에 쓰세요.

어기대다	흘겨보다	뿔로통하다	머쓱하다
------	------	-------	------

① 순순히 따르지 아니하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뻔대다	
② 무안을 당하거나 흥이 꺾여 어색하다	
③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어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눈으로 보다	
④ 못마땅하여 얼굴에 성난 빛이 나타나 있다	

2) 높여 부르는 말을 생각하여 빈칸 ㉠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 ① 이름                      ② 별명                      ③ 성명                      ④ 성함                      ⑤ 명칭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안녕, 내 비밀번호!>의 본문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 진짜 화나!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보고.”

나는 짜증을 내며 리모컨에 있는 숫자를 마구 눌러 댔어.

“숙제도 하지 않고 맨날 텔레비전만 켜는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니.”

(나) 누나들이 묻는 것마다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

“와, 똑똑하네.”

계속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했어.

“나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도 아는데!”

“어머, 그래? 정말이야?” 한 누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

“정말이지 그럼! 삼 팔 오 그리고…….”

“야, 꼬마 너!” 우리 누나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 입을 막았어.

가족이 ‘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가), (나)를 통해 각각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쓰세요.

(가)의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나)의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 [보기]

- ①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려서
- ② 아무에게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
- ③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④ ‘나’가 똑똑한 것을 누나가 질투해서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안녕, 내 비밀번호!>의 본문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누나가 시큰둥하게 물어보니까 더 화가 났어.

“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도 모르니까 친구가 무시하잖아! 나 이제 학교도 안 갈 거야!”

나는 목에 걸고 있던 카드키를 바닥에 던져 놓고 현관으로 갔어.

“아무 데도 안 갈 거니까 운동화는 필요 없어!”

(나) 나는 직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 했어.

낮에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 보았어.

“비밀번호 입력 횟수가 초과되었습니다.”

번호판에서 깜빡깜빡 빛이 나오더니 곧 꺼져 버렸어.

(다) 그렇게 좋아하는 휴대 전화가 없으면 누나는 하루 종일 애가 탈 거야. 전화도 못 하고, 문자도 못 하고.

누나가 속상해서 끁끁델 걸 생각하니 고소했어. 누나도 내 기분을 알 거야. 내가 비밀번호 알고 싶은 거랑 똑같지, 뭐.

1) 윗글에서 ‘나’가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 카드키를 꺼서 속을 들여다본다.    ② 이것저것 아무 번호나 눌러 본다.

③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떼를 쓴다.    ④ 누나 휴대 전화를 학교에 가져가 버린다.

2) (다)에 나타난 ‘나’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 ㉠과 ㉡에 각각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 ㉠ : (                      ), ㉡ : (                      )

휴대 전화 없이 지내면 (    ㉠    )도 답답한 ‘나’의 마음을 알게 될 테니,  
‘나’에게 (    ㉡    )를 알려 줄 거야.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안녕, 내 비밀번호!>의 본문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말을 하지 않으니깐 친구들 얼굴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이야기도 더 잘 듣게 돼.

우리 반 왕덩치 얼굴은 오늘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아.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 들어온 왕덩치 볼이 발그스름했어. 아기 얼굴처럼 귀여웠어. 전에는 왕덩치만 보면 눈치껏 슬쩍슬쩍 피했었는데 오늘은 전혀 겁이 나지 않았어.

(나) 내 짝꿍 눈가에서 새끼손톱만 한 흉터도 발견했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더니 짝꿍 얼굴이 흥당무가 되었어. “야, 너 진짜 왜 그래?”

짝꿍이 내 어깨를 밀쳤어. 나는 아픈 척 얼굴을 찡그리며 짝꿍 눈가에 난 흉터를 가리켰어. “어, 이거? 아무도 모르던데 어떻게 알았어? 아기 때 넘어져서 그래.”

(다) 며칠 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다섯 살쯤 되는 꼬마가 울고 있었어. 길을 잃었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만 부르는 거야. 도와주고 싶지만 난 비밀번호가 걸려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가)~(다)를 읽고, 말을 하지 않을 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판단해 봅시다. 아래 [보기]에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각각 골라 아래 표에 기호를 모두 쓰세요.

[보기]

- ㉠ 친구들의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다.
- ㉡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 ㉢ 친구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좋은 점	
나쁜 점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안녕, 내 비밀번호!>의 본문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비밀번호를 만드는 일이야.

쉬운 숫자로 할까? 안 돼. 누가 쓰고 있는 번호일 수도 있잖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그 번호를 말해 버리면 어떻게 해. 나는 꼼짝없이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말하기 싫어도 억지로 말을 하다 보면 내 속마음을 다 들킬 거야. 어쩌면 정말 중요한 비밀까지 나도 모르게 말해 버릴 지도 몰라.

아주 어려운 걸로 할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말도 못 하고 살아야 하잖아. 그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나) '이거랑 아주 비슷한데.'

비밀번호가 떠오를 듯 떠오를 듯하며 내 머릿속을 간질였어.

내가 머리를 감싸 쥐자 주방에서 엄마가 달려왔어. 엄마는 내 등을 토닥여 주며 형과 누나를 꾸짖기 시작했어.

"너희들 제발 그만 좀 해라. 동생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자꾸 꼬마라고 하지 마. 두리라고 불러!"

1) (가)를 읽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말을 쓰세요.

비밀번호가 쉬우면 안 되는 까닭	비밀번호가 어려우면 안 되는 까닭
내가 모르는 사람과 억지로 말을 하다 중요한 (㉠)을 말할 수 있어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을 못하고 살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2) (나)에 나타난 '나'의 마음을 다음과 정리할 때,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나'의 이름은 ( )인데, '나'를 자꾸 ( )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것이 싫다.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안녕, 내 비밀번호!>의 본문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그런데도 식구들은 나를 '꼬마'라고 불러. 나도 '두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말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꼬마'라는 말이 제일 싫어.

왜냐고? 난 꼬마가 아니니까

어저께 일인데, 1학년 진짜 꼬마가 교실을 못 찾고 울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애를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어. 그런데 내가 왜 꼬마야?

(나) 나는 어느 날 엄마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졸랐어.

"다음에 알려 줄게. 비밀번호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야. 잘못하면 소중한 걸 모두 잃을 수도 있거든." 엄마는 내 등을 다독이며 말했어.

"소중한 게 뭔데? 나는 소중한 거 없어. 비밀번호나 알려 줘!"

분한 마음에 생떼를 썼어. 엄마는 내 눈물을 닦아 주며 말했어.

"통장에 모아 둔 돈도, 우리 집도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안전한 거야. 그것 말고도 소중한 건 많아. 비밀번호로 꼭꼭 잠가 놓으면 잃어버릴 리가 없단다."

1) (가)를 읽고, 여러분도 자신이 많이 컸다고 느낀 경험을 떠올려 써 보세요.

.....

.....

.....

2) (나)를 읽고, 여러분 자신에게 비밀번호가 중요한 까닭을 써 보세요.

예) 휴대 전화로 친한 친구와 지키고 싶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창의력 쑥쑥 키우기

다음 글의 ‘나’처럼 여러분도 비밀번호를 걸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고, 마음속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나도 비밀번호를 만들지, 뭐.”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이제껏 몰랐을까?

“그런데 비밀번호를 어디에 걸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

그래서 나만 아는 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어.

“나만 아는 것. 나만 아는 내 것……”

중얼거리며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알고 있는 게 떠오르지 않았어. 방 안을 찬찬히 둘러봤어.

책상, 책꽂이, 가방에 붙어 있는 자석 단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잠기는 방문…… 비밀번호를 그런 데다 걸 수는 없잖아.

“어디에 걸지?” 아까처럼 계속 생각하고 생각했어.

드디어 답을 찾았어. 바로 ‘내 마음!’

비밀번호를 걸고 싶은 것	
비밀번호	(씻!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말하거나 쓰면 안 됩니다. 이 칸은 비워 두세요. ^^)
그것에 비밀번호를 걸고 싶은 이유	



# 안녕, 내 비밀번호!

다림 | 문정옥 글 / 이덕화 그림



##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1쪽	<p>1) (예시답안) 큰 어린이와 똑같이 생긴 작은 어린이가 서로를 가리키거나 바라보고 있다. 바탕에는 숫자, 한글, 로봇, 스탠드가 보인다.</p> <p>2) (예시답안) 사물함, 휴대 전화, 현관문, 게임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p> <p>3) (예시답안) 꼬마라는 말을 듣기 싫은 두리가 자기 가족들에게 중요한 곳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고 가르쳐 주지 않아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일 것이다.</p>				
2쪽	1) 이상 2) 소견 3) 이비인후과				
3쪽	1) ① 여기대다 ② 머쓱하다 ③ 흘겨보다 ④ 뽀로통하다 2) ④				
4쪽	(가)의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 ③ (나)의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 ②				
5쪽	1) ① 2) ㉠: 누나 ㉡: 비밀번호				
6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좋은 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쁜 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좋은 점	㉠, ㉡	나쁜 점	㉢
좋은 점	㉠, ㉡				
나쁜 점	㉢				
7쪽	1) ㉠: 비밀 ㉡: 말 2) 두리, 꼬마				
8쪽	1) (예시답안) 전에는 혼자 가지 못했던 먼 곳까지 겁내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 2) 생략.				
9쪽	(예시답안) 비밀번호를 걸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 그것에 비밀번호를 걸고 싶은 이유 :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소중한 비밀이기 때문에				